## ■ 그림 여행



## 성 로렌스, 성 시리아쿠스

(St. Lawrence, St. Cyriacus c. 1509-10)

Matthias Grunewald (마티아스 그륀발트 1470 - 1528) (목판에 유채 99.1 cm x 43.0 cm 프랑크푸르트 스태델 미술관)

서양 미술사 속에는 생애나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이 간혹 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초에 걸쳐 살았던 중세 독일 화가 마티아스 그륀발트도 그 중에 한 명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유럽은 중세에서르네상스로 전환해 가고 있었지만 그륀발트는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16세기로 접어들 때까지 후기 고딕 미술의 전통을 이어갔던 화가이다. 그러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륀발트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하나 이유는 그의 그림들이 북구 르네상스 대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으 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륀발트에 대한 기록이 전무 해서 후대의 미술사가들은 작품의 기법과 완성도를 보 고 그의 작품들을 뒤러의 것으로 오판했다. 실제 그륀발 트는 뒤러의 작품을 직접 보았고 뒤러와 함께 작업을 하 기도 했다.

여기 '성 로렌스, 성 시리아쿠스' 는 야콥 헬러라는 프랑크푸르트의 상인의 주문을 받아 그륀발트가 뒤러와함께 제작한 '헬러 제단화' 의 바깥쪽 판넬에 그려진 그림이다. 뒤러는 제단화의 안쪽 판넬에 '성모 마리아의 승천' 을 그려 넣었다. 그륀발트는 가난한 자들의 수호자 성로렌스와 귀신을 쫓아내는 성 시리아쿠스를 무채색으로그랬는데 그륀발트가 화려한 채색 유화 대신 왜 '그리싸이 (Grissaile)' 기법으로 불리는 무채색 유화를 그렸는지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림의 기법과 완성도에서 뒤러의 그림과 그륀발트의 그림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그륀발트의 그림이 뒤러의 작품으로 간주되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엄숙하고 장중한 뒤러의 그림과는 달리 그륀발트의 그림은 격정적인 감정과 유려한 서정성을 보여준다. 무채색으로 묘사한 이 두 성인의 그림은 그륀발트 작품의 그러한 특성을 여과없이 나타내며 빛과 그림자 속에 중세 종교화의 깊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륀발트는 평생 종교화만 그렸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의 작품은 10여 점밖에 되지 않는데 그가 생전에 그렸던 많은 그림들은 '30년 전쟁' 중에 전리품으로 전함에 실려 스웬덴으로 향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발틱 해에 수장되었다고 한다. 그륀발트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재발견 되었다. 예술적 역량과 작품의 희소가치 때문에 이제 그는 전설적인 화가가 되었지만 그의 결작들은 북구의 바다 속에 영원히 잠자고 있다.

《김동백》







\*Open Sale\* Tel. (213) 800.1158